

# 청년 취향 속 빠진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 고작 14%

### 지금 규모는 148억, 실제 이용은 21억원에 불과 청년층 선호하는 영화·대중음악 이용 대상 제외 조계원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등 자율성 높여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이 19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청년 11만3천180명에게 약 148억원 상당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러나 7월 말 기준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14.3%)에 불과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포함 148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은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전남을 비롯해 제주·경북·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밖에 광주(10.0%), 전북·충남·울산(10.7%), 경남(10.9%), 강원(11.2%), 대구(11.9%), 충북(12.7%), 인천(13.6%) 등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처럼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 등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도 한정돼

있다. 이와 달리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8월 현재 전국 평균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비해 4배 이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개 사업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인 청년층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의 순이다.

문체부의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매칭 비율이 33.3%로 고정돼 있어 비율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지자체가 매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 문체부는 올해 지원 대상 청년 규모를 당초 1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1만3천180명을 선정해 계획 대비 70.7%만 채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92.2%에 달했고 세종도 81%를 넘었지만, 제주(53.1%), 경남(55.9%), 대전(56.3%), 경북(57.9%), 울산(58.0%), 충북(58.3%), 부산(59.4%)은 50%대에 머물렀다.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사업"이라며 "정책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영화 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전국 88개소 '작은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영화·대중음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기약없는 내집 마련 평균 1년4개월 지연

### 정준호 "실분양가 높아져...공정관리 실패, 국가 책임"

사전 청약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주택이 당초 분양액 예정보다 평균 16개월 가량 늦어져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전국 99개 단지 중 86개 단지는 분양액 공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국토교통위·사진)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분양액이 예정됐던 14개 단지는 평균 18개월, 2024년 18개 단지는 평균 14개월 가량 분양액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는 뜻이다. 특히 당초 공고일이 2023년이었던 물량(분양액 완료 제외) 14건 중 6건은 분양액이 2년 가량 지연됐다.

군포 대야미 지구의 A2블록 신혼희망 유형의 경우 3년이 지연돼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늦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 폭도 컸다. 분양액을 완료한 성남 신촌 A2블



록의 분양가가 12.7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위례 A2-7블록 1.6%, 인천 가정2 A2블록 9.8% 등 당초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분양가가 높아진 사례도 늘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높아진 분양가까지 얹힌 데 덮친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개월 이상 분양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대출 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등 지원책으로 내놓았으나 하나같이 간접 지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국가의 정책관리 실패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출 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같은 간접적 보상은 체감성이 없을 것"이라며 "분양액이 지연돼 분양가 상승 피해까지 입은 사전청약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국회의장 만남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도시숲 사업비 7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19일 "산림청으로부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사업으로 총 70억원 규모의 도시숲·실외정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9월5일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총사업비 60억원 규모의 '도시숲 조성 사업'은 박람회장 등지에 기후대응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규모 숲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외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규모로 박람회 개최 장소인 다도해 광장에 다양한 테마공원을 구성해 정원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박람회의 볼거리 제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보유한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여수시와 협의해 도시숲 조성 공간에 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장 등 방목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안도결 "유류세 인하, 세수 감소 13조"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결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동안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



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문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이다. 2023년 56조4천억원이 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지난해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도결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환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